

2016 성탄축하 찬양의 밤 사회자 대본

opening

남경숙 : 안녕하세요, 저는 2016 성탄축하 찬양의 밤 진행을 맡은 남경숙,

전동환 : 전동환 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벌써 은혜가 넘치지 않나요?

남경숙 : 그러게요, 찬양의 밤은 이제 시작인데 말이에요.

전동환 :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고 찬양하기에 앞서 주변에 앉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남경숙 :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전동환 :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남경숙 : 영아부 부터 고등부까지, 아올러 어린이집, 사랑부, 에바다부 등 10개 부서에서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전동환 : 문영규 집사님의 기도로 2부, 성탄축하 찬양의 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영상 2분 10초)

사랑부를 소개합니다. 사랑부는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입니다. 주일 11시부터 복지관 지하 2층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지도에 강태인 목사님, 부지도에 나영실 전도사님, 부장에 최상기 장로님, 부감에 정영래 집사님, 박금식 권사님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영상 1분)

영아부를 소개합니다. 영아부는 0~3세 영아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학생과 36명의 교사가 함께, 주일 11시 제 1교육관 2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지도에 김윤정 전도사님, 부장에 정인옥 집사님, 부감에 이정진 집사님, 강순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영상 55초)

어린이집

첫 순서는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들려질 찬양은 <멋진 선물> <탄일종> 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

어린이집 친구들의 찬양을 들으셨는데요. 예쁜 목소리와 악기가 어우러져 더욱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어린이집 친구들과 교사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을 보니까 마치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네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신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순서들도 너무나 기대되네요.

사랑부

다음 순서는 사랑부입니다. 지휘에 안설희 선생님, 반주에 전하라 선생님과 함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할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이번 순서는 영아부인데요, 오늘 영아부 찬양은 김지은 선생님의 지휘와 김은진 선생님의 반주와, 영아부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반짝반짝 성탄별> 그리고 <저 들 밖에 한 밤 중에> 함께 들어볼까요?

특송1 (최인경 집사님, 2부 예배 반주자) - 5~7분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캐롤 메들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영아부 친구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지금까지 어린 친구들이 찬양을 해주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2부예배 반주자이신 최인경 집사님께서 오르간으로 찬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이 더욱 은혜가 넘칠 것 같네요. 최인경 집사님이 찬양해주실 곡은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캐롤 메들리>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

유아부를 소개합니다.

유아부에서는 4~5세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예배는 주일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제 1교육관 201호에서 진행됩니다. 지도에 이수경 전도사님, 부장에 김철남 집사님, 부감에 김정배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영상 50초)

유치부를 소개합니다.

유치부는 주일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제 1교육관 207호에서 예배드립니다. 지도에 김영신 전도사님 부장에 홍순길 안수집사님, 부감에 장병준 안수집사님, 조영란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영상 52초)

유아부

다음 순서는 유아부입니다. 정나혜 선생님이 지휘로, 천예나 선생님이 반주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반짝반짝 예수님별>과 <내가 만약 나비라면>을 찬양해 줄 유아부 친구들을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와, 정말 왜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기다린다고 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들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아이같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치부

네, 다음 순서도 어린아이네요. 바로 유치부 입니다. 지휘에 김지선 선생님, 반주에 문주영 선생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한 아기>, <아기 예수 나셨다> 함께 들어볼까요?

초등1부를 소개합니다.

초등1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학교입니다. 주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제 1교육관 307호에서

지도에 김정신 목사님, 부장에 유형근 집사님, 부감에 구성혁 집사님, 오혜옥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영상 1분 13초)

초등2부를 소개합니다.

초등2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주일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제 2교육관 4층에서 진행됩니다. 지도에 성준우 목사님, 부장에 박영섭 집사님, 부감에 한장현 집사님, 김금순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초등1부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왕께 경배하라

초등2부

천사 찬송하기를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특송2 (아멘 금관 중주, 3부 예배 오케스트라, 트럼펫2/호른/튜바/트럼본/피아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만 백성 기뻐하여라

은혜로운 찬양을 해준 초등1부 초등2부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특송 순서 인데요. 3부 1시 예배에서 섬겨주고 계신 아멘찬양대 오케스트라의 금관 중주입니다. 트럼펫, 호른, 튜바, 트럼본과 피아노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해주실텐데요. 저도 악기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연주해주실 곡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만 백성 기뻐하여라> 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바다부를 소개합니다. 에바다부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는데요, 학생 예배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성인 예배는 12시 40분부터 2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제 1교육관 110호 에바다부실로 동일합니다.

(1분25)

중등부를 소개합니다. 중등부는 14세에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학교입니다.

중등부 예배는 주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제 1교육관 5층에서 진행됩니다. 지도에 최영민 목사님, 부지도에 허에스터 전도사님, 부장에 이양선 집사님, 부감에 임병익 집사님, 남준자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고등부를 소개합니다. 고등부에서는 17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주일 11시 제2교육관 4층에서 진행됩니다. 지도에 주영진 목사님, 부지도에 조종현 강도사님, 부장에 문영규 집사님, 부감에 김성수 집사님, 이교숙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에바다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별 빛 속에 빛나는 주님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수화로 찬양을 해주신 에바다부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은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이 후 회중찬양때 수화로 찬양해보는 시간이 있을텐데요, 그 시간에 같이 따라해보면서 수화의 아름다움을 다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중등부 곡소개...?

중등부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고등부

사랑이 예 오셨네

중고등부 연합

마라나타

이번 순서는 조금 특별한 순서인데요, 중고등부 연합 워십팀의 찬양입니다. 2개의 부서가 힘을 합친만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과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이 지금까지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면 이번 찬양은 오실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가 부를 찬양은 <마라나타> 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closing

전동환 : 오늘 어떠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남경숙 : 정말 좋았어요. 성탄절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전동환 : 저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러진 우리의 찬양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남경숙 :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2016 성탄축하 찬양의 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전동환 :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에바다부와 함께 수화 찬양을 배워보겠습니다.

남경숙 : 와, 항상 수화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기했는데, 찬양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니 더욱 좋네요. 지금 앞에 에바다부 수화찬양팀이 나와계시는데요,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전동환 :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1절을 한 번은 목소리로, 한 번은 손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남경숙 : 주기도문 하심으로 2016년도 성탄축하 찬양의 밤을 마치겠습니다.

()

전동환 : 나가실 때 주변 의자나 바닥에 떨어진 순서지나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 메리크리스마스~